

2013 국가직 9급(재 책형) 해설 및 총평

문 1. 정답 ②번

흔히 출제되던 복수표준어를 묻는 문제인데, 그 유형이 기존과 약간 달라진 것뿐이다.
‘옥수수-강냉이’의 관계는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의미상 차이가 없는 복수표준어이다.
선택지 ②번 ‘보조개-불우물’의 관계 역시 복수표준어이다.

<오답 살피기>

① 친구 - 「1」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친고(親故)

「2」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벗 - 「1」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동봉·봉우·봉지·봉집·우인

「2」사람이 늘 가까이하여 심심함이나 지루함을 달래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친구’와 ‘벗’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복수표준어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단어의 쌍이다.

③ ‘관리인’은 ‘매니저’의 순화어이다.

④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화학적 이름이다. 동의어 관계이다.

문 2. 정답 ④번

어법을 포함한 올바른 문장 찾기 문제이다.

<오답 살피기>

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에 간접높임을 적용한다.)

②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춤’과 ‘노래’는 같은 서술어를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문장의 대등 연결 구조에서는 항상 공통 서술어의 자격을 살펴야 한다.)

③ 축배를 터뜨리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 들며 (‘축배’는 ‘들다, 올리다’ 등의 서술어가 어울린다.)

문 3. 정답 ③번

③ ‘협의’는 [혀비](원칙)/[혀비](허용) 둘 다 가능하다.

<오답 살피기>

① 읽게 → [일께](○) (접받침 ‘ㄹ’의 대표음은 [ㄱ]이다. 그러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ㄹ]로 발음되는 예외가 있다.)

② 밭을 → [바틀](○) (연음규칙에 의해 받침 ‘ㅌ’이 조사 ‘을’ 자리로 연음된다.)

④ 막지만 → [막찌만](○) (접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를 제외하고는 대표음이 [ㄱ]이다.)

문 4. 정답 ③번

문법 단위를 세분화하거나,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고, 연속적인 실체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이다.

<오답 살피기>

- ① 추상성 - 언어의 내용은 추상화 과정(공통되는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 ② 자의성 -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임의적이다.
- ④ 역사성 -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성장-사멸’의 과정을 거친다.

문 5. 정답 ②번

앞뒤 문맥을 살펴 알맞은 문장을 찾아 넣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힐링’이란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일컫는데, 현재까지 수많은 힐링 상품이 출현했으며 고가의 여행, 주택 상품들까지 나왔다고 소개한다. 그 뒤에 접속어 ‘그러나’를 통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짐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고 ()를 제시했다. 그 후 우선 내면부터 다스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으므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은 고가의 힐링 상품들과 반대되는 저비용 혹은 돈이 들지 않는 힐링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②‘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가 가장 어울린다.

문 6. 정답 ④번

-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 → 옳은지(○)

‘지’는 의존 명사로 사용될 때와 어미로 사용될 때의 띄어쓰기가 다르다.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는 앞말과 반드시 띄어 쓰고, 어미로 사용될 때는 붙여 써야 한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의 흐름, 기간’을 나타내는 문장에 어울리면 의존명사이고, 그 이외에는 어미라는 것을 암기해 두도록 한다. 선택지 ④번 문장은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어미로 보아 붙여 쓴다.)

<오답 살피기>

-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 ‘꼴’은 그 수량만큼 해당함을 나타내는 접사.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 ‘순’은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사.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온’은 ‘전부의, 모두의’의 뜻을 가진 관형사. 띄어 쓰는 것이 맞다.

문 7. 정답 ③번

제시된 글에서 서술자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칭하며, 원숭이 중 가장 뇌가 크므로 다른 종들과 달리 성공했고, 고상하게 살려 노력하지만, 성기 역시 가장 커서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말 많고 탐구적이며 번식력이 왕성한 원숭이’가 되었는데, ‘동물학자’인 서술자 자신은 그런 ‘원숭이’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서술자가 동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서술자는 호모 사피엔스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축적하여 온 동물적 본능을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한 박식함과 숭고함의 충돌으로 단번에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호모 사피엔스의 동물적 본능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인간의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불과 수천 년 전에 획득한 것이다.

문 8. 정답 ④번

- ① 여행의 동기와 목적 →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대한 고등학교 연수단’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출발할 때의 감흥 → ‘내 가슴은 마구 뛰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③ 출발할 때의 날씨와 시간 →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비행기, 나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문 9. 정답 ③번

‘이옥설’은 이규보의 작품으로 행랑채의 방 세 칸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적은 글이다.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방치해 두었고, 나머지 한 칸은 비가 샌 지 얼마 안 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방치해 두었던 곳은 모든 것이 썩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금방 수리한 곳은 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까닭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나 정치도 잘못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고치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들고, 바로바로 고치려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문 10. 정답 ②번

제시된 글에서는 함경도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속초 청호동에 자리 잡으면서 ‘아바이 마을’이 형성되고, 함경도식 먹을거리가 유명해졌다고 언급한다. 그 중 동해의 풍부한 어종 가운데 하나로 일 년 내내 잡히는 가자미를 이용한 가자미식해가 가장 유명해졌고, 속초 청호동 원주민들이 가자미식해에 호감을 가지고 함경도 피란민들에게 판매를 권유하면서 속초 명물이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목은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식해’가 어울린다.

문 11. 정답 ①번

- 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 늘리다 - 본디보다 양이 많아지다.
 - 늘이다 - 본디보다 길이만 길어지다.

<오답 살피기>

- ② 가름 -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승부나 등수 따위를 나누는 일

같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③ 로서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로써 -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④ 다르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틀리다 -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옳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

문 12. 정답 ②번

()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② 雲泥之差(운니지차) :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유사한 뜻의 성어로는 ‘天壤之差(천양지차)’가 있다.

<오답 살피기>

① 阿鼻叫喚 - 아비규환 :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怒氣登天 - 노기등천 :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침.

④ 百難之中 - 백난지중 :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문 13. 정답 ②번

이 글은 자연 생태계에서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면서 전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에 빗대어 문제 제기한 후, 다양성의 확보가 사회 집단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와 자연 생태계의 공통점을 유추하여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 14. 정답 ②번

② 기여하고져(×) → ‘기여하고자(○)’로 고친다. 어미 ‘-고자’의 사용.

<오답 살피기>

① 우리부(×)→우리 부(○) : ‘부’는 업무 조직에서, 부서의 하나를 이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계획인 바(×)→계획인바(○) : ‘바’는 ‘-는데, -더니, -(으)니’로 해석이 가능하면 앞 말에 붙여 쓴다.

문맥상 ‘계획인데’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붙여 쓴다.

④ 밝힌바와(×)→밝힌 바와(○) : ‘바’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문 15. 정답 ③번

제시된 글은 모 기업이 ‘VVIP 회원’을 위한 고가(高價)의 마케팅을 펼치다가,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부담에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시작한 일이 너무 과해서 중도에 기업들 스스로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옹색 곤란하게 됨을 비유하는 ③번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어울린다.

<오답 살피기>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 유리하게 함.
- ② 비육지탄(髀肉之嘆)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
-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문 16. 정답 ④번

- ④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

: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오답 살피기>

- 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 ② 조선 시대 송사의 종류

: 송사는 다시 옥송과 사송으로 나뉜다.

- ③ 조선 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옥사는 강도, 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적발, 수색 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문 17. 정답 ③번

순서 재배열 문제 중, 문장을 재배열하는 문제일 경우는 지시어, 접속어를 활용하면서 공통되는 단어나 구절을 중심으로 순서를 맞춰가는 것이 좋다. (밑줄 친 부분이 공통된 구절들이다.)

ㄷ.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ㄱ.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ㄴ.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ㄹ. 필리핀의 고산 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문 18. 정답 ③번

밑줄 친 부분은 앞 어근과 뒤 어근이 수식관계를 형성하는 종속 합성어이므로 수식관계로 합성된 단어를 찾으려면 된다. ③번 ‘책가방’은 ‘책’이 ‘가방’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이다.

<오답 살피기>

- ① 손발 - 대등 합성어
- ② 논밭 - 대등 합성어

④ 연세 - 年歲 해(년) 해(세), '나이'의 높임말. 융합 합성어

문 19. 정답 ①번

① 바람 :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오답 살피기>

② 안밖 → 안팎 (한글 맞춤법 31항 ‘ㅎ’소리가 덧나는 것)

③ 막연한(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한) → 막역한(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

④ 게시판 → 게시판(揭示板)

문 20. 정답 ①번

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 제시된 글에서는 사회자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하고, 이어서 반대 측 입론자에게 발언하도록 하고 있다.

<오답 살피기>

②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명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토론의 사회자는 중립을 지키고,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토론이란 기본적으로 설득을 목표로 하는 말하기이다.

④ 찬성 측은 입론 단계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총평>

올해 국가직은 쉽고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비문학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난도가 낮아서 큰 고민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사성어 문제도 2012년 공직박람회 예시 문제를 따라 독음이 없는 것과 독음이 있는 것이 골고루 출제되었고, 어법 문제들은 상당히 익숙한 유형들이 나왔다. 특이한 점은 문학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고전 수필이 한 문항 출제되었으나 문학 이론이 아닌 주제 파악 문제였다.